

## 창세기 1:27; 2:22-23에서 나타나는 인간 창조의 신학적 의미와 번역 제안

이공재\*

###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구약의 첫 부분을 장식한 이 ‘창조’ 모티브는 이후 제2 이사야(사 40-45), 욥기(욥 38-39), 시편(시 8; 19; 104; 136 등) 그리고 지혜문학(욥 28; 38:1-42:6; 잠 8:22-31; 전 1:3-11) 등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문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암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창 1:28)의 복을 상기시킬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소위 ‘제사장 문서’ (창 1:1-2:4상반)와 ‘야웨 문서’(창 2:4하반-25)라는 문헌층에 속해서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sup>1)</sup> 베스터만(C. Westermann)의 올바른 지적처럼,<sup>2)</sup> 이 두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 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목원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stingpea@hotmail.com](mailto:stingpea@hotmail.com).

1) 일부 랍비들과 탈무드 해석은 하나의 창조 이야기를 지지한다. 예를 들면, D. Krochmalnik, “WAJJIZER. Anthropologie der Geschlechter in Talmud, Midrasch, Religionsphilosophie und Kabbala”, M. Oeming, hrs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VB 1 (Münster: LIT Verlag, 2003), 88-94.

2) C. Westermann, “Das Reden von Schöpfer und Schöpfung im Alten Testament”, F. Maass, hrsg., *Das Ferne und Nahe Wort: Festschrift. Leonhard Rost zur Vollendung seines 70. Lebensjahres am 30. November 1966 gewidmet*, BZAW 105 (Berlin: Töpelmann, 1967), 238.

이 경험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신앙 고백’ 이외에도 창조와 연관된 다양한 주요 신학적 주제들이 씨실과 날실처럼 촘촘히 짜여 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문학적 양식, 구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때로는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속 창조주는 יהוה אלהים와 אלהים으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אדם(창 1:26-27)은 다시 한 번 흙으로부터(창 2:7) 창조된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동물과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세상은 채소와 나무 그리고 풀이 종류대로 자랐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지만(창 1:11-12),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땅에 나무, 풀이 없는 척박한 상태였다(창 2:5).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의 차이가 확인된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기 1:27하반, וַיִּבְרָא אֱלֹהִים אֱדָם בְּרֵאשִׁית בְּיוֹמֵהוּ בְּיַד אֱלֹהִים에서 그가(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다. (즉) 그가 그들을 וַיִּבְרָא와 וַיִּבְרָא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YHWH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אדם을 만드시고(창 2:7) 여러 과정을 거쳐 창세기 2:22상반, וַיִּבֶן יְהוָה אֱלֹהִים אֶת־הַצֵּלָע에서 YHWH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취한 갈빗대로 אשה를 만드셨다. 이후 아담의 진술인 창세기 2:23하반, וַיִּשְׁמַע אָדָם קוֹל אִשָּׁה וַיֹּאמֶר זֶה אֵשֶׁת אֲדָמָה לָקָחָה לָאָדָם에서 최종적으로 갈빗대를 אִשָּׁה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אשה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구절에 대한 우리말 주요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창 1:27하반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하나님이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 2:22상반, 23하반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2:23하반을 상당히 의역한 『공동』을 제외하고,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אָדָם과 אִשָּׁה는 ‘남자’로 אִשָּׁה와 אִשָּׁה는 ‘여자’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는 4개의 히브리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적으로 타당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본문

먼저 두 본문에 대한 주요 독일어와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주요 독일어 번역본

ELB	ZUR	LUT	EIN
Als <b>Mann</b> und <b>Frau</b> schuf er sie.	Als <b>Mann</b> und <b>Frau</b> schuf er sie.	Und schuf sie als <b>Mann</b> und <b>Weib</b> .	Als <b>Mann</b> und <b>Frau</b> schuf er sie.
und der HERR, Gott, baute die Rippe, die er von dem Menschen genommen hatte, zu einer <b>Frau</b> , ..... diese soll <b>Männin</b> heißen, denn vom <b>Mann</b> ist sie genommen.	Und der HERR, Gott, machte aus der Rippe, die er vom Menschen genommen hatte, eine <b>Frau</b> ..... Diese soll <b>Frau</b> heißen, denn vom <b>Mann</b> ist sie genommen.	Und Gott der HERR baute eine <b>Frau</b> aus der Rippe, die er von dem Menschen nahm, ..... man wird sie <b>Männin</b> nennen, weil sie vom <b>Manne</b> genommen ist.	Gott, der HERR, baute aus der Rippe, die er vom Menschen genommen hatte, eine <b>Frau</b> ..... <b>Frau</b> soll sie heißen; denn vom <b>Mann</b> ist sie genommen.

주요 영어 번역본

NIV	NAS	NJB	NKJ
<b>male and female</b> he created them.	<b>male and female</b> He created them.	<b>male and female</b> he created them.	<b>male and female</b> He created them.
Then the LORD God made a <b>woman</b>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 she shall be called <b>woman</b> , for	The LORD God fashioned into a <b>woman</b> the rib which He had taken from the man, ..... She shall be called	Yahweh God fashioned the rib he had taken from the man into a <b>woman</b> ..... She is to be called <b>Woman</b> , because	Then the rib which the Lord God had taken from man He made into a <b>woman</b> , ..... she shall be called <b>Woman</b> ,

NIV	NAS	NJB	NKJ
she was taken out of <b>man</b> .	<b>Woman</b> ,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b>Man</b> .	she was taken from <b>Man</b> .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b>Man</b> .

זָכָר과 אִישׁ와 נְקִיבָה와 אִשָּׁה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각각 남자(Man)와 여자(Frau/Männin)로 번역한 주요 독일어 번역본과는 달리, 영어 번역본은 זָכָר와 נְקִיבָה는 각각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생리적 성별의 차이(Sex)를 의미하는 ‘male’과 ‘female’로, אִישׁ와 אִשָּׁה는 인간 사회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성별의 차이(Gender)<sup>3)</sup>를 의미하는 ‘man’과 ‘woman’으로 의도적으로 구별되게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זָכָר와 נְקִיבָה로 창조된 인간: 첫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זָכָר와 נְקִיבָה 또는 אִישׁ와 אִשָּׁה와 같이 서로 다른 성별의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성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인간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 2.1.1. אָדָם, זָכָר 그리고 נְקִיבָה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주요 히브리어 단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עֲלָם과 דְמוּת를 따라 אָדָם이 창조되었다(창 1:26-27). 창세기 중 오직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창 1:26, 27; 5:1, 3; 6:3; 9:6)에서만 언급되는 עֲלָם과 דְמוּת는 각각 ‘형상’과 ‘모습’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אָדָם은 하나님의

3) ‘Sex’와 ‘Gender’의 차이는 J. Shapiro,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Gender”, *Sounding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64:4 (1981), 450-462를 참고하라.

4) S. A. Meier, “Linguistic Clues on the Date and Canaanite Origin of Genesis 2:23-24”, *CBQ* 53:1 (1991), 19. 그러나 J. C. de Moor,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J.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 Werkgezelschap in Nederland and België, Held at Oxford, 1997*, OTS 40 (Leiden: Brill, 1998), 119와 각주 33에서 언급된 학자들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훼손된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5) 비교, J. T. A. G. M. van Ruiten,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Early Jewish Literature”, G. P. Luttikhuisen, ed.,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terpretations of the Biblical Narrative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0), 34-62.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צַלְמֵנוּ**와 **תְּמוּנָתוֹ**는 본 연구의 주요 단어는 아니지만 첫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는 단어이다. 먼저, 히브리어 **צַלְמֵנוּ**은 보통 한 대상의 모조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신적 존재의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아카드어 ‘살무(*šalmu*)’에 유래되었다.<sup>6)</sup> 이와 달리 **תְּמוּנָתוֹ**는 한 대상의 내적인 특성 및 성질을 묘사할 때 보통 사용되었다.<sup>8)</sup> 여타의 피조물 중 유일하게 **צַלְמֵנוּ**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에 관한 특정한 무언가를 진술하려는 목적이 크다.<sup>9)</sup> 대표적으로 타 피조물과 비교해서 **צַלְמֵנ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주장<sup>10)</sup>과 세상에 대한 **צַלְמֵנוּ**의 통치권<sup>11)</sup>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중 두 번째 주장은 천상 세계를 통치하는 신적 존재를 대신하여 신의 모습으로 지상 세계의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권위를 강조하는 고대 근동의 제왕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sup>12)</sup> 왜냐하면 왕은 지상 세계에 현존하는 신적 존재

- 
- 6) ‘*šalmu*’는 모조품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등가(ontologically equivalent)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Z. Bahrani, *The Graven Image: Representation in Babylonia and Assyria*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121-148은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šalmu*’에 관하여는 S. L. Herring, “A ‘Transubstantiated’ Huma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Image and the Presence of God in Genesis i 26f.”, *VT* 58 (2008), 485-489와 T. Gudbergsen, “God consists of both the Male and the Female Genders: A short note on Gen 1:27”, *VT* 62 (2012), 452를 참고하라.
- 7) ‘~처럼 되다’ 또는 ‘~처럼 보인다’를 의미하는 동사 **הִמָּנֶה**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어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 8) C. Dohmen, *Das Bilderverbot: Seine Entstehung und seine Entwicklung im Alten Testament*, 2nd ed., BBB 62 (Athenäum: Peter Hanstein Verlag, 1987), 122, 각주 99.
- 9) H. Seebass, *Genesis I: Urgeschichte (1,1-11,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82.
- 10) P. A. Bird,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HTR* 74:2 (1981), 141-143; U. Neumann-Gorsolke, *Herrschen in den Grenzen der Schöpfung: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am Beispiel von Psalm 8, Genesis 1 und verwandten Texten*, WMANT 10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73-185.
- 11) W. Groß, “Gen 1,26.27; 9,6: Statue oder Ebenbild Gottes?: Aufgabe und Würde des Menschen nach dem hebräischen und dem griechischen Wortlaut”, *JBTh* 15 (2000), 21-28은 이어지는 본문(창 1:29-30)에서 식물을 인간의 먹거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D. Volgger, “Der Segen Gottes in der ersten Schöpfungserzählung Gen 1,1-2,4a”, *Liber Annuus* 65 (2015), 13-19는 인간이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먹거리로 식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특별한 먹거리를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 12) H. D. Preuß,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sraels Weg mit JHWH*, Band 2 (Stuttgart: Kohlhammer, 1992), 123.

의 ‘모습’으로 백성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אָדָם**은 어떤 피조물인가? 이 본문에서 **אָדָם**은 결코 ‘남자’를 의미하지 않으며,<sup>13)</sup> 아마도 창세기 5:2에서 인명(人名)으로 사용되기 전까지<sup>14)</sup> 여타의 동물과 식물에 대비되는 인간 속(屬)<sup>15)</sup>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אָדָם**와 **נְקֵבָה**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창 1:26-27).<sup>16)</sup>

인간 창조 때 처음으로 사용된 이 두 단어는 이후에 동물의 성(Sex)을 구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먼저, **זָכָר**는 구약에서 남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로(민 3:40, 43; 렘 20:15) 3번 사용된 적도 있지만, 보통(총 82번) 객관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성(Sex)을 구분할 때 **남성**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었다.<sup>17)</sup> 그리고 이 단어는 한 대상을 상징적 또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거나, 식물의 성을 구분하는 데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sup>18)</sup> **נְקֵבָה**는 **זָכָר**에 상반되는 성의 개념으로 **여성**을 뜻한다.<sup>19)</sup>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동물 창조와 연관되어 사용된 것은 없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성이 구분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13) S. Schroer, “Schuf Gott den Mann nach seinem Bild? Biblische Männerbilder und Gottesbilder im Fokus der theologischen Genderforschung”, N. Jakoby, et al., *Männer und Männlichkeiten: Disziplinäre Perspektiven* (Zürich: vdf Hochschulverlag AG, 2013), 117-133.

14) 왜냐하면,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창 2:19), 『공동번역』(창 2:15), 『표준』(창 3:20), LXX(창 2:16), VUL(창 2:19), ELB(창 2:20), EIN(창 2:25), LUT(창 3:8), NIV와 NAS(창 2:20) 그리고 KJV(창 2:19) 등 번역본에 따라 인명 아담으로 언급된 첫 본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15) O. 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n Problematik von Genesis 1,1-2,4a*, FRLANT 11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53-154.

16)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암수한몸(an androgyne)인 아담을 창조했다는 S. Ruzer, “Reflections of Genesis 1-2 in the Old Syriac Gospels”, J. Frishman and L. van Rompay, eds., *The Book of Genesis in Jewish and Oriental Christian Interpretation: A Collection of Essays* (Louvain: Peeters Publishers, 1997), 94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17) 남자 성기를 뜻하는 **זָכָר**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어에 관하여는 R. E. Clements, “זָכָר(zākār)”,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593-599와 A. Pazeraite, ““Zākhār and nēqēvāh He created them”: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in the Bible”, *Feminist Theology* 17:1 (2008), 96-98을 참고하라.

18) W. von Soden, “zikaru(m)”, *AHw*, vol. I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1), 1526은 이에 상응하는 아카드어 ‘지카루(zikaru)’는 신적 존재 그리고 식물의 성을 구별하는 데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돌과 질병의 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음을 제시했다.

19) W. von Soden, “naqābu(m)”, *AHw*, vol.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743의 주장처럼 ‘꽃을 꺾다’ 또는 ‘처녀성을 잃다’를 의미의 아카드어 ‘나카부(naqābu)’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어에 관한 연구는 J. Scharbert, “נְקֵבָה(nāqab)”,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V (Stuttgart: Kohlhammer, 1987), 589-591; A. Pazeraite, ““Zākhār and nēqēvāh He created them”: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in the Bible”, 96-97을 참고하라.

## 2.1.2.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 속 $\text{אָדָם}$ 와 $\text{אִשָּׁ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 속  $\text{אָדָם}$ 와  $\text{אִשָּׁה}$ 를 우리말 성경처럼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번역해야 할까? 먼저, 여타의 문헌에서 동물의 성을 구분하는데 사용되었던<sup>20)</sup> 이 두 단어는 소위 제사장 문서에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에 주로 언급되었다. 아마도 제사장 문서의 저자가 분명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의도는 이 두 단어가 제사장 문서에 속한 원역사 이야기 본문<sup>21)</sup> 중 노아의 홍수 이야기<sup>22)</sup>와 창세기 이외 다른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노아 홍수 이야기(창 6:19; 7:9, 16) 속에서 살아남은 암컷과 수컷 동물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text{אָדָם}$ 와  $\text{אִשָּׁה}$ 는 성별에 따른 능력이나 가치의 차이가 아닌 생물학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만 언급되었다.<sup>23)</sup>

둘째, 창세기 이외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에서 이들 단어는 특정한 목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성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다. 먼저, 인간의 성별에 따라 다른 서원 예물 값이 정해지는 본문에 두 단어가 쓰였다(레 27:3-7). 그리고 제의의 목적에 따라 예물로 봉헌되는 동물의 성별을 구분할 때도 이들 단어가 쓰였다. 암·수 구분 없이 봉헌되는 화목제물과 달리(레 3:1, 6), 유월절 제물(출 12:5), 번제물(레 1:3, 10) 그리고 속죄제물(레 4:3, 23) 그리고 외국인이 봉헌하는 화목제물과 서원제물은 수컷으로만 봉헌하도록 규정되었다(레 22:18-19). 이와 달리 속건제물은 암컷 동물로만 봉헌되었다(레 5:6).<sup>24)</sup> 그러나 서원이나 제의의 종교적 의미는 봉헌되는 제물의 성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언급한 제사장 문서 본문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을  $\text{אָדָם}$ 와  $\text{אִשָּׁה}$ 로 구분한 기준은 성별에 따른 능력이나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생물학적 차이임을 알 수 있다.

20) 비제사장 문서에 속한 홍수 이야기(창 7:3)에서 처음으로 새 일곱 쌍의 성을 구분한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1) 제사장 문서에 속한 원역사 이야기에 관한 연구는 M. Witte, *Die biblische Urgeschicht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Genesis 1,1-11,26*, BZAW 265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119-123과 M. Arneht, *Durch Adams Fall ist ganz verderbt ... Studien zur Entstehung der alttestamentlichen Urgeschichte*, FRLANT 2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33-96을 참고하라.

22) 그 전에 먼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언급한다(창 5:1-2).

23) S. Shectman, “The Priestly Language of Gender”, *Hebrew Bible and Ancient Israel* 8 (2019), 426-427.

24) 그러나 암수 구분이 없는 비둘기(레 5:7-8; 12:6, 8)가 속죄제물로 봉헌되기도 한다.

## 2.1.3. 창세기 1:27 인간 창조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אָדָם בְּצַלְמוֹ בְּצַלְמֵ אֱלֹהִים בָּרָא אֹתוֹ זָכָר וּנְקֵבָה בָּרָא אֹתָם

위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즉) 그(=하나님)는 그들, 남성과 여성을<sup>25)</sup> 창조하셨다.”

이러한 번역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인간이 단수(אִתָּא)에서 복수(אֹתָם)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 랍비들<sup>26)</sup>은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양성(양성)을 지닌 피조물<sup>27)</sup>로 창조하였으며, 이후 분리 과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창조되었다고 주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해석은 윈터(P. Winter)<sup>28)</sup>나 드 모어(J. C. de Moor)<sup>29)</sup>와 같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드 모어는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이 양성적 본성을 지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근동에서 양성적 본성을 소유한 신들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sup>30)</sup> 그러나 이미 YHWH 유일신 신앙을 알고 있는 제사장 문서 저자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신적 개념을 반영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sup>31)</sup>

25) O. 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140의 주장처럼 보통 제사장 문서에서 ‘~로’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text{ב}$  또는  $\text{בִּ}$ 와 같은 전치사가 일반적으로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들,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26) P. Heger, *Women in the Bible, Qumran and Early Rabbinic Literature: Their Status and Roles*, STDJ 110 (Leiden: Brill, 2014), 18-21.

27) E. J. van Wolde, *A Semiotic Analysis of Genesis 2-3: A Semiotic Theory and Method of Analysis Applied to the Story of the Garden of Eden*, SSN 25 (Assen: Van Gorcum, 1989), 175.

28) P. Winter, “Šadoqite Fragments IV 20, 21 and the Exegesis of Genesis 1:27 in late Judaism”, *ZAW* 68 (1956), 81: “When the Holy One – blessed he He – created the first man, He created him bi-sexual.” 이외에도 J. C. de Moor,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117-120에서 언급된 1900년대 주석가들의 주장과 E. Noort,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G. P. Luttikhuisen, ed.,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terpretations of the Biblical Narrative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0), 8-9를 참고하라.

29) J. C. de Moor,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120-121.

30) Ibid., 124. 그는 이집트의 아텐(Aten)과 아문-레(Amun-Re), 히타이트의 쿠마르비(Kumarbi), 메소포타미아의 엘릴(Enlil)과 마르둑(Marduk)과 같은 창조신들은 부신과 모신의 특성과 역할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B. Groneberg, *Lob der Ištar: Gebet und Ritual an die altbabylonische Venusgöttin Tanatti Ištar* (Leiden: Brill, 1997), 141과 W. Gauer, “Muttergöttin und Vatergott”, *ARG* 2 (2000), 255-282를 참고하라.

31) 비교, E. Noort,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7-8.



둘째, 창세기 1:1-2:4상반의 창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창 1:26). 이를 통해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타 피조물과 비교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모티브는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다른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 반드시 피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창 9:6)’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sup>32)</sup>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 역시 수컷과 암컷으로 구분되는 동물처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동물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말해 준다(창 5:1-2). 이러한 성의 구분은 사회적 역할이나 능력 차이를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낮을 주관하는 빛과 밤을 주관하는 빛 모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좋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역할과 능력의 차이 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알려 준다.<sup>33)</sup>

그렇다면 왜 제사장 문서 본문에서는  $\text{אִשָּׁה}$ 와  $\text{אִשָּׁה}$ 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메이어스(C. Meyers)가 제시했다. 그녀는 그 답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신의 위상과 여성의 지위와의 연관성에서 찾았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여신 숭배의 증가로 연결되었기에, ‘YHWH 유일신 신앙’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 문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특정한 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34)</sup>

32) R. Scoralick, “Als Mann und Frau geschaffen? Die Bibel und ihre Leser\*innen”, G. Bauer, R. A. Quinn, und I. Hotz-Davies, hrsg., *Die Naturalisierung des Geschlechts: Zur Beharrlichkeit der Zweigeschlechtlichkeit*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8), 67-74.

33) I. Fischer, “Egalitär entworfen – hierarchisch gelebt. Zur Problematik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und einer genderfairen Anthropologie im Alten Testament”, B. Janowski und K. Liess, hrsg., *Der Mensch im alten Israel: Neue Forschungen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HBS 59 (Freiburg, Herder, 2009), 268; M. Leuenberger, “Geschlechterrollen und Homosexualität im Alten Testament”, *EvTh* 80 (2020), 213-218. 비교, P. A. Bird,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157.

34) C. Meyers, “Procreation, Production, and Protection: Male-Female Balance in Early Israel”, *JAAR* 51:4 (1983), 587-588.

#### 2.1.4. זָכָר וּנְקֵבָה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모티브

זָכָר וּנְקֵבָה로 창조된 인간은 이어지는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sup>35)</sup> 동물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지만(창 1:22), 인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했다. 그리고 ‘זָכָר וּנְקֵבָה로 창조된 인간’ 모티브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모티브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sup>36)</sup>를 거쳐 노아의 홍수 이야기(창 8:17; 5:1-2; 9:1, 7)까지 제사장 문서에 속한 원역사 이야기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심에 형상(צֶלֶם), 모습(דְמוּת), 인간(אָדָם), 남성(זָכָר)과 여성(נְקֵבָה)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와 연관된 ‘축복 모티브’<sup>37)</sup>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서 인간은 여타의 피조물(동·식물)과 비교되는 ‘생육하고 번성함의 표본’<sup>38)</sup>이었다. 창세기 1:26-28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형상<sup>39)</sup>대로 인간(אָדָם)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창 5:1-2). 비록 3절에서 אָדָם은 자손의 조상 즉, 한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이어지는 אָדָם의 계보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זָכָר וּנְקֵבָה 대신에 노아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는다(창 9:1). 그러나 홍수 이후로 인간이 창조된 환경은 변했다. 즉, 노아와 그의 가족만 생존한 상황에서 아담의 계보에서 확인된 번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이후 하나님의 형상(צֶלֶם)대로 창조된 인간(אָדָ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창 9:6-7)이 다시 전제되어야 했다.<sup>40)</sup>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창

35) 그러나 A. Pazeraite, “‘Zākhār and nēqēvāh He created them’: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in the Bible”, 98은 종족 번식 및 출산을 위해서 동물을 포함한 인간을 זָכָר וּנְקֵבָ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36) O. 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155; M. Witte, *Die biblische Urgeschicht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Genesis 1,1-11,26*, 123-126; E. Noort,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9. 이와 달리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280-281은 창 1:26-28과 노아의 계보와의 연관성을 부정한다.

37) D. Volgger, “Der Segen Gottes in der ersten Schöpfungserzählung Gen 1,1-2,4a”, 16-19.

38) A. Schüle, “Gottes Schöpfung”, W. Dietrich, hrsg., *Die Welt der Hebräischen Bibel: Umfeld – Inhalte – Grundthemen* (Stuttgart: Kohlhammer, 2017), 421.

39) 그러나 본 구절(창 5:1)에서는 צֶלֶם이 아닌 דְמוּת가 사용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은 자신의 צֶלֶם과 דְמוּת를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것이다(창 5:3).

40) D. Volgger, “Der Segen Gottes in Gen 9,1-7”, A. Cavicchia and M. Cucca, eds., “Figlio

조된 인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신학적 모티브는 족장들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창 17:6, 20-21; 28:3-4; 35:11; 47:27; 48:3-4)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사장 문서 속에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룸으로 성취되었다(출 1:7).<sup>42)</sup> 이를 통해 제사장 문서 속 축복 모티브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후 노아의 홍수 시기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족장 시기를 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제는 단순히 신앙적 주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질서에 포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학적 주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2. אֱלֹהִים와 אֱדָמָה로 창조된 인간: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달리 인간(אָדָם)이 אֱלֹהִים와 אֱדָמָה로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2.2.1. 창세기 2장 속 אֱלֹהִים와 אֱדָמָה의 창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흙으로 지음 받은 אָדָם은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인간 속을 의미한다.<sup>43)</sup> 즉, 창세기 2:7-17에서 언급된 אָדָם은 남자나

---

*d'uomo alzati, ti voglio parlare" (Ez 2,1): Studi in onore del prof. Marco Nobile in occasione del suo 75° compleanno, Bibliotheca 43 (Roma: Antonianum, 2018), 31-58; B. Janowski, "Schöpfung, Flut und Noahbund. Zur Theologie der priesterlichen Urgeschichte", HeBAI 1 (2012), 502-521.*

41) P. A. Bird,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157; M. Arnoeth, *Durch Adams Fall ist ganz verderbt ... Studien zur Entstehung der alttestamentlichen Urgeschichte*, 31.

42) M. Bauks, "Genesis 1 als Programmschrift der Priesterschrift (P<sup>s</sup>)", A. Wénin, ed.,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ture, Redaction and History*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342-344.

43) S. Japhet, "Ebenbild Gottes oder Rippe Adams? Die Stellung der Frau nach biblischem Denken in der Sicht der beiden Schöpfungsberichte", M. Oeming, hrs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VB 1 (Münster: LIT Verlag, 2003), 81-82; B. Janowski,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rundfragen – Kontexte – Themenfelder* (Tübingen: Mohr Siebeck, 2019), 93-95.

여자도 아니며,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소유한 양성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면 **אִישׁ**와 **אִשָּׁה**는 **זָכָר**와 **נְקֵבָה**와는 어떠한 의미적 차이가 있는가? 먼저, **אִישׁ**와 **אִשָּׁה**가 창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처하는 인간을 위해 YHWH 하나님은 그 앞에 돕는 자 **עֹזֵר**<sup>44)</sup>를 만들기 위해(창 2:18, 20) 그의 갈빗대 **צִלְעַת**를 뽑아(창 2:21) **אִשָּׁה**를 만드시고, 이후에 갈빗대를 뽑은 자리에 살을 채운 인간은 **אִישׁ**가 된다(창 2:22-23).

이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돕는 자’로 번역되는 **עֹזֵר**이다. 일반적으로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상위에 위치하지만, 본 구절에서 **עֹזֵר**가 YHWH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 상위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עֹזֵר**가 ‘종’과 같이 인간을 도와주는 자로 해석할 근거도 빈약하다.

분명한 사실은 돕는 자로 동물(20절)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YHWH 하나님께서 아담의 **צִלְעַת**를 뽑아 돕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갈빗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צִלְעַת**는 ‘다른 편’, ‘다른 장소’ 또는 ‘반대편’(출 26:20)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종종 하나의 얼굴, 두 쌍의 팔과 다리를 가진 인간으로부터 반대편의 형상에서 분리해서 돕는 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sup>45)</sup>의 의견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신화적인 해석에 동의하긴 어렵다. 오히려 인간(**אָדָם**)과 돕는 자(**עֹזֵר**)는 본질적으로 한 육체에서 기원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쌍방 간 한쪽의 우위를 의미하지 않고 두 존재 간의 평등관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6)</sup>

이와 함께, 인간을 돕는 **עֹזֵר**가 남성 명사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단순히 **אָדָם**을 남자로 **עֹזֵר**를 여자로 해석하여, 위 본문을 일부 가부장적인 인식 또는 여성 종속으로 이해하거나 남성 중심의 진술로 보는 것<sup>47)</sup>을 지양해야 한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성으로 창조하시고 이를 참 좋게 평가하였지만(창 1:31), 두 번째 창조 이야

44) ‘앞’ 또는 ‘맞은 편’으로 해석되는 **עֹזֵר**가 전치사 **עִם**와 함께 언급된 예는 단 2회로 본 구절을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45) D. Krochmalnik, “WAJJIZER. Anthropologie der Geschlechter in Talmud, Midrasch, Religionsphilosophie und Kabbala”, 89.

46) E. J van Wolde, *A Semiotic Analysis of Genesis 2-3*, 177; E. Noort,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12-13.

47) R. A. Simkins, “Gender Construction in the Yahwist Creation Myth”, A. Brenner, ed., *Genesi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econd Seri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33, 각주 5.

기에선 인간이 홀로 창조된 상황을 좋지 않게 평가한다(창 2:18). 이는 אָדָם을 통해서 이후에 언급될 אִישׁ과 אִשָּׁה가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 2.2.2. אִישׁ과 אִשָּׁה의 신학적 의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 2:22상  
반, 23하반: 『개역개정』)”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보통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는 אִישׁ와 אִשָּׁה가 중심 단어이다. 구약 본문에서 각각 약 2160번과 775번 언급되는 이들 단어는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אִישׁ는 ‘남자’ 이외에 ‘남편’(창 29:32; 민 30:7; 삼상 1:8 등) 또는 일반 명사 ‘인간’(출 22:30; 욥 38:26) 그리고 때로는 ‘아담’(사 2:9; 31:8; 렘 2:6 등)으로도 번역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אָדָם과 달리 인간 אִישׁ는 결코 하나님(창 32:29) 또는 YHWH(사 2:11, 17)와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 준다(비교, 호 11:9).<sup>48)</sup>

‘여자’ 이외에 ‘아내’로(창 4:19, 23, 25 등) 가장 많이 번역되는 אִשָּׁה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אִישׁ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논해졌다. 예를 들면, 보통 히브리어 문법에서 여성 명사는 남성 명사에 어미 הִ가 붙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 명사인 אִישׁ와 여성 명사인 אִשָּׁה는 문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의견은 창세기 2장 인간 창조 이야기 전체적 내용과 비교해서 두 단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악센트를 제외하고 여성 명사 어미와 동일한) 방향을 지시하는 어미 הִ (he-locale)가 있다.<sup>49)</sup> 이러한 문법적 요소와 연관된 단어는 אִשָּׁה와 אִשָּׁה를 뜻하는 אִשָּׁה אִשָּׁה 그리고 אִישׁ와 אִשָּׁה이다. 문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논리적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부터(창 2:7), 여자는 남자로부터(창 2:23)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법과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갈람부시(J. Galambush)는 하나의 말장난, “the pun”<sup>50)</sup>

48) N. P. Bratsiotis, “אִישׁ”,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I (Stuttgart: Kohlhammer, 1973), 239.

49) J. Hofstijzer, *A Search for Method: A Study in the Syntactic Use of the H-Locale in Classical Hebrew* (Leiden: Brill, 1981), 7-10; S. A. Meier, “Linguistic Clues on the Date and Canaanite Origin of Genesis 2:23-24”, 19-21.

50) J. Galambush, “‘adam from ‘adama, ‘issa from ‘is: Derivation and Subordination in Genesis 2.4b-3.24”, M. P. Graham, W. P. Brown, and J. K. Kuan, eds., *History and Interpretation*:

으로 취급했으나, 에바흐(J. Ebach)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이를 설명했다. 그는 ‘이야기의 논리’와 ‘문법의 논리’ 즉, “die Logik einer Erzählung”과 “die Logik der Grammatik” 사이의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방향을 지시하는  $\eta$  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문법적 논리로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YHWH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한 여자를 다시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고(22절) 이후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설명하는 창세기 2장 이야기의 논리로 살펴보면 두 단어의 관계가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text{אִשָּׁה}$ 와  $\text{אָדָם}$  사이의 이와 같은 연관성만으로는 이 두 단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은 YHWH 하나님이 그의 곁에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후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창 2:24) 속에서 이 두 단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앞 본문에서 남성과 여성( $\text{זָכָר}$ 와  $\text{נְקֵבָה}$ )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가 언급된 창세기 내 제사장 문서의 본문을 함께 분석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 $\text{אִשָּׁה}$ 와  $\text{אָדָם}$ )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같은 문헌층인 야웨 문서에 속한 또 다른 본문인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한 YHWH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창세기 3장을 함께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 심판의 내용은 여자의 ‘출산’과 남자의 ‘노동’이다(창 3:16-17).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야웨 문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여자와 남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선악과를 먹은 후 남자와 여자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YHWH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방된 세상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그 공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유목과 농경 사회를 경험한 후 성별의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노동’과 ‘출산’이라는 YHWH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묻고 있는 것이다.<sup>53)</sup> 그렇기 때문에 이러

*Essays in Honour of John H. Hayes*, JSOT.S 173 (Sheffield, JSOT Press, 1993), 34와 각주 6.

51) J. Ebach, “Liebe und Paradies. Die Logik einer Erzählung und die Logik der Grammatik”, ders., *Ursprung und Ziel: Erinnerter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Biblische Exegesen, Reflexionen, Geschichten* (Neukirchener Verlag, 1986), 115-116.

52) K. A. Mathews, *Genesis 1-11:26.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vol. 1A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6), 119-220.

53) 비교, E. Noort,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18; B. Janowski,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102-115.

한 심판의 내용을 결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불평등(inequality)<sup>54)</sup>의 원인으로 이해하거나 ‘노동’과 ‘출산’이라는 육체적 고통의 책임을 한 대상에게 묻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심판의 내용을 한 사회의 온전함을 위해 남자와 여자에게 묻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한다면,<sup>55)</sup> 결국, אִישׁ와 אִשָּׁה는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sup>56)</sup>

### 2.3. זָכָר과 נְקֵבָה 그리고 אִישׁ와 אִשָּׁה의 신학적 의미 요약

지금까지 두 창조 이야기 속에 언급된 זָכָר과 נְקֵבָה 그리고 אִישׁ와 אִשָּׁה가 지닌 몇 가지 신학적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זָכָר과 נְקֵבָה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를 의미한다면, אִישׁ와 אִשָּׁה는 사회적 성별(Gender)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앞의 두 단어는 생물학적 다름인 ‘남성’과 ‘여성’을 그리고 뒤의 두 단어는 사회적 다름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둘째, אִישׁ와 אִשָּׁה에 노동과 출산과 같은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요구한다면, זָכָר과 נְקֵבָה에게는 이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단어에 해당되는 대상 모두에게서 그 어떠한 성별의 우월성이나 사회적 지위 및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זָכָר과 נְקֵבָ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한 존재라면, אִישׁ와 אִשָּׁה는 동일한 육체에서 창조되었기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אִישׁ와 אִשָּׁה는 서로에게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넷째, זָכָר과 נְקֵבָה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אִישׁ와 אִשָּׁה는 출산을 통해 번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차이점이다. אִישׁ와 אִשָּׁה만이 상징적 또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남편(אִישׁ) YHWH와 아내(אִשָּׁה) 이스라엘 백성(호 2:2, 18) 또는 남편 YHWH와 아내 예루살렘(사 54:5)의 예에

54) B. Janowski,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99. 이와 달리 K. A. Mathews, *Genesis 1-11:26*, 173, 220-221은 여자가 돕는 자로 창조되었기에 성별에 따른 능력의 차이, 즉 남자의 리더십과 여자의 팔로우십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55) 비교, M. Zehnder, “Homosexualität (AT)” (erstellt: März 2008), accessed 18 April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56) K. A. Mathews, *Genesis 1-11:26*, 173-174; S. Japhet, “Ebenbild Gottes oder Rippe Adams? Die Stellung der Frau nach biblischem Denken in der Sicht der beiden Schöpfungsberichte”, 79-80.

서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창 18:2, 16, 22; 삿 13:10, 11 등)를 אֱלֹהִים로 표현하는 예를 통해서는 종교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אֱלֹהֵינוּ וְלֹא-אֱלֹהֵי אֲחֵרִים, 즉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호 11:9하반)”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אֱלֹהִים를 사용하였을 뿐이다(비교, 출 15:3; 렘 14:9 등).

### 3. 나가는 말

우리말 성경으로 창세기 1-2장을 읽다보면, 인간 창조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YHWH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YHWH 하나님은 독처하는 인간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 돕는 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인간은 자신을 ‘남자’라 칭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각각 평생 ‘노동’과 자녀 ‘출산’이라는 YHWH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한글 성경을 읽다보면, 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는 אָדָם과 נִשְׂמָ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는 אֱדָם과 אִשָּׁה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는 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문헌과 그 저작 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먼저, אָדָם과 נִשְׂמָה로 창조된 인간을 언급한 창세기 1장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이다. 그 속에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창세기 내 또 다른 제사장 문서에서도 אָדָם과 נִשְׂמָה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축복’ 모티브는 이방 민족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는 족장들과 출애굽 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אָדָם과 נִשְׂמָה의 창조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이유는 포로기라는 암울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번성할 수 있다는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אָדָם과



הָאָדָם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אָדָם과 הָאָרְצָה의 생육함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연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달리 אִשָּׁא와 הָאָדָם가 언급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왕국 시대에 기록된 야웨 문서에 속한 본문이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상황을 전제했음을 의미한다. 그 현실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אִשָּׁא와 הָאָדָם에게 노동과 출산으로 상징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과 의무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는 왕국의 멸망과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는 무관하게, 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첫 번째 저자는 사회적 능력이나 역할의 차이가 아닌 생물학적 차이인 성(sex)을 의미하는 אָדָם과 הָאָרְצָה를, 두 번째 저자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가 수반되는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는 אִשָּׁא와 הָאָדָם를 분명하게 서로 다른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통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창세기 1:27하반과 창세기 2:22상반, 23하반의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셨다.”

<주제어>(Keywords)

인간 창조,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성, 젠더.

human creation, male and female, man and woman, sex, gender.

(투고 일자: 2023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 Armeth, M., *Durch Adams Fall ist ganz verderbt ... : Studien zur Entstehung der alttestamentlichen Urgeschichte*, FRLANT 2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Bahrani, Z., *The Graven Image: Representation in Babylonia and Assyria*,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 Bauks, M., “Genesis 1 als Programmschrift der Priesterschrift (P<sup>s</sup>)”, A. Wénin, ed.,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ture, Redaction and History*,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333-345.
- Bird, P. A.,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HTR* 74:2 (1981), 129-159.
- Blum, E.,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Bratsiotis, N. P., “שֵׁן”,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I, Stuttgart: Kohlhammer, 1973, 238-252.
- Clements, R. E., “זָכָר(zākār)”,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593-599.
- Crouch, C. L., “Genesis 1:26-27 as a Statement of Humanity’s Divine Parentage”, *JThS* 61 (2010), 1-15.
- De Moor, J. C.,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J.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 Werkgezelschap in Nederland and België, Held at Oxford, 1997*, OTS 40, Leiden: Brill, 1998, 112-125.
- Dohmen, C., *Das Bilderverbot: Seine Entstehung und seine Entwicklung im Alten Testament*, 2nd ed., BBB 62, Athenäum: Peter Hanstein Verlag, 1987.
- Ebach, J., “Liebe und Paradies. Die Logik einer Erzählung und die Logik der Grammatik”, ders., *Ursprung und Ziel: Erinnernte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Biblische Exegesen, Reflexionen, Geschichte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6, 111-125.
- Fischer, I., “Egalitär entworfen – hierarchisch gelebt. Zur Problematik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und einer genderfairen Anthropologie im Alten Testament”, B. Janowski und K. Liess, hrsg., *Der Mensch im alten Israel: Neue Forschungen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HBS 59, Freiburg: Herder, 2009, 265-298.
- Galambush, J., “‘adam from ‘adama, ‘issa from ‘is: Derivation and Subordination in

- Genesis 2.4b-3.24”, M, P. Graham, W. P. Brown, and J. K. Kuan, eds., *History and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ur of John H. Hayes*, JSOT.S 173, Sheffield, JSOT Press, 1993, 33-46.
- Gauer, W., “Muttergöttin und Vatergott”, *ARG* 2 (2000), 255-282.
- Groneberg, B., *Lob der Ištar: Gebet und Ritual an die altbabylonische Venusgöttin Tanatti Ištar*, Leiden: Brill, 1997.
- Groß, W., “Gen 1,26.27; 9,6: Statue oder Ebenbild Gottes?: Aufgabe und Würde des Menschen nach dem hebräischen und dem griechischen Wortlaut”, *JBTh* 15 (2000), 11-38.
- Gudbergsen, T., “God consists of both the Male and the Female Genders: A short note on Gen 1:27”, *VT* 62 (2012), 450-453.
- Heger, P., *Women in the Bible, Qumran and Early Rabbinic Literature: Their Status and Roles*, STDJ 110, Leiden: Brill, 2014.
- Herring, S. L., “A ‘Transubstantiated’ Huma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Image and the Presence of God in Genesis i 26f.”, *VT* 58 (2008), 480-494.
- Hoftijzer, J., *A Search for Method: A Study in the Syntactic Use of the H-Locale in Classical Hebrew*, Leiden: Brill, 1981.
- Janowski, B., “Schöpfung, Flut und Noahbund. Zur Theologie der priesterlichen Urgeschichte”, *HeBAI* 1 (2012), 502-521.
- Janowski, B.,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rundfragen – Kontexte – Themenfelder*,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Japhet, S., “Ebenbild Gottes oder Rippe Adams? Die Stellung der Frau nach biblischem Denken in der Sicht der beiden Schöpfungsberichte”, M. Oeming, hrs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VB 1, Münster: LIT Verlag, 2003, 77-85.
- Krochmalnik, D., “WAJJIZER. Anthropologie der Geschlechter in Talmud, Midrasch, Religionsphilosophie und Kabbala”, M. Oeming, hrs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BVB 1, Münster: LIT Verlag, 2003, 87-100.
- Leuenberger, M., “Geschlechterrollen und Homosexualität im Alten Testament”, *EvTh* 80 (2020), 206-229.
- Mathews, K. A., *Genesis 1-11:26.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vol. 1A,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6.
- Meier, S. A., “Linguistic Clues on the Date and Canaanite Origin of Genesis 2:23-24”, *CBQ* 53:1 (1991), 18-24.

- Meyers, C., "Procreation, Production, and Protection: Male-Female Balance in Early Israel", *JAAR* 51:4 (1983), 569-593.
- Moore, S. D., "Gigantic God: Yahweh's Body", *JSOT* 70 (1996), 87-115.
- Neumann-Gorsolke, U., *Herrschen in den Grenzen der Schöpfung: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am Beispiel von Psalm 8, Genesis 1 und verwandten Texten*, WMANT 10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 Noort, E.,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G. P. Luttikhuisen, ed.,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terpretations of the Biblical Narrative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0, 1-18.
- Pazeraité, A., "'Zākhār and nēqēvāh He created them':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in the Bible", *Feminist Theology* 17:1 (2008), 92-110.
- Preuß, H. 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sraels Weg mit JHWH*, Band 2, Stuttgart: Kohlhammer, 1992.
- Ruzer, S., "Reflections of Genesis 1-2 in the Old Syriac Gospels", J. Frishman and L. van Rompay, eds., *The Book of Genesis in Jewish and Oriental Christian Interpretation: A Collection of Essays*, Louvain: Peeters Publishers, 1997, 91-102.
- Scharbert, J., "נָקֵבָה(nāqab)", G. J. Botterweck und H. Ringgren, hrsg., *ThWAT*, vol. V, Stuttgart: Kohlhammer, 1987, 589-591.
- Schroer, S., "Schuf Gott den Mann nach seinem Bild? Biblische Männerbilder und Gottesbilder im Fokus der theologischen Genderforschung", N. Jakoby, et al., *Männer und Männlichkeiten: Disziplinäre Perspektiven*, Zürich: vdf Hochschulverlag AG, 2013, 117-133.
- Schüle, A., "Gottes Schöpfung", W. Dietrich, hrsg., *Die Welt der Hebräischen Bibel: Umfeld - Inhalte - Grundthemen*, Stuttgart: Kohlhammer, 2017, 412-428.
- Scoralick, R., "Als Mann und Frau geschaffen? Die Bibel und ihre Leser\*innen", G. Bauer, R. A. Quinn, und I. Hotz-Davies, hrsg., *Die Naturalisierung des Geschlechts: Zur Beharrlichkeit der Zweigeschlechtlichkeit*,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8, 61-77.
- Seebass, H., *Genesis I: Urgeschichte (1,1-11,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 Shapiro, J.,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Gender", *Sounding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64:4 (1981), 446-465.

- Shectman, S., “The Priestly Language of Gender”, *Hebrew Bible and Ancient Israel* 8 (2019), 416-430.
- Simkins, R. A., “Gender Construction in the Yahwist Creation Myth”, A. Brenner, ed., *Genesi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econd Seri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32-52.
- Steck, O. H.,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n Problematik von Genesis 1,1-2,4a*, FRLANT 11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van Ruiten, J. T. A. G. M.,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 Early Jewish Literature”, G. P. Luttikhuisen, ed.,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Interpretations of the Biblical Narrative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0, 34-62.
- van Wolde, E. J., *A Semiotic Analysis of Genesis 2-3: A Semiotic Theory and Method of Analysis Applied to the Story of the Garden of Eden*, SSN 25, Assen: Van Gorcum, 1989.
- Volgger, D., “Der Segen Gottes in der ersten Schöpfungserzählung Gen 1,1-2,4a”, *Liber Annuus* 65 (2015), 9-24.
- Volgger, D., “Der Segen Gottes in Gen 9,1-7”, A. Cavicchia and M. Cucca, eds., “*Figlio d'uomo alzati, ti voglio parlare*” (Ez 2,1): *Studi in onore del prof. Marco Nobile in occasione del suo 75° compleanno*, Bibliotheca 43, Roma: Antonianum, 2018, 31-58.
- von Soden, W., “naqābu(m)”, *AHw*, vol.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743.
- von Soden, W., “zikaru(m)”, *AHw*, vol. I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1, 1526.
- Westermann, C., “Das Reden von Schöpfer und Schöpfung im Alten Testament”, F. Maass, hrsg., *Das Ferne und Nahe Wort: Festschrift. Leonhard Rost zur Vollendung seines 70. Lebensjahres am 30. November 1966 gewidmet*, BZAW 105, Berlin: Töpelmann, 1967, 238-244.
- Winter, P., “Šadoqite Fragments IV 20, 21 and the Exegesis of Genesis 1:27 in late Judaism”, *ZAW* 68 (1956), 71-84.
- Witte, M., *Die biblische Urgeschicht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Genesis 1,1-11,26*, BZAW 265,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 Zehnder, M., “Homosexualität (AT)” (erstellt: März 2008), accessed 18 April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Abstract>

## **Theological Meaning and Translation Suggestions of Human Creation in Genesis 1:27; 2:22-23**

Keung-Jae Lee  
(Mokwon University)

Genesis 1-2 (Korean version of the Bible) consists of two different stories about the creation of humans (Gen 1:1-2:4a and 2:4b-25). In Genesis 1, God created humans in his own image as ‘man’ and ‘woman’, and gave them his blessing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hen, in Genesis 2, YHWH God took a rib from the human, whom he had created from the dust and created a ‘woman’ for him. Later, the first created human being called himself ‘man’. As such, they are translated as ‘man’ and ‘woman’ without distinction in both stories in the Korean translation, but are written differently in Hebrew: זָכָר and נְקִיבָה (Gen 1:27) and אִישׁ and אִשָּׁה (Gen 2:23) are written differently.

This use of different Hebrew words is due to the different literature and the different periods in which they were written. The first creation story, which mentions the creation of humans using זָכָר and נְקִיבָה, belongs to the so-called ‘priestly source’ written after the captivity. In the following texts, they are referred to as God’s blessed beings who are fruitful and multiplying. The first text (Gen 1:28) describes זָכָר and נְקִיבָה as beings created and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his motif is confirmed in Noah’s genealogy (Gen 5:1-2), and refers to the humans who survived after the flood (Gen 9:6-7) and the patriarchs of Israel in Canaan (Gen 17:6, 20-21; 28:3-4; 35:11; 47:27; 48:3-4) and the Israelites who formed a large nation in Egypt (Exo 1:7). And another fact is that these words were used to distinguish the biological sex of animals (Gen 6:19; 7:9, 16). For this reason, we propose to translate זָכָר and נְקִיבָה in the first story as ‘male’ and ‘female’, signifying biological differences (sex).

The second creation story which mentions the creation of humans using אִישׁ and אִשָּׁה belongs to the so-called ‘Jahwist source’ written during the Kingdom period. These documents recorded the social situation in Israel at the time. Genesis 2:18 tells us that the first created ‘Adam’ needed ‘a helper’. And in the

following verses, Adam and a helper are referred to again as אָדָם and אִשָּׁה. This shows that they are social beings who need each other, and that Israeli society at that time would have required them to perform social roles and duties like labor and childbirth (Gen 3:16-17). For this reason, we propose to translate אָדָם and אִשָּׁה in the second story as ‘man’ and ‘woman’, signifying differences in social roles (gender).